

## 왜, 대통령을 의지하려 하는가?

한 경 호 (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중략)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중략)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중략)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중략)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중략) 너희가 그의(왕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삼상 8:4-18)

이웃한 블레셋의 앞선 철기문명과 그에 기반한 우월한 군사력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사사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지도자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왕을 중심으로 뭉쳐서 외침(外侵)에 대응하고 사회 안정을 기하여 민생을 돌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다. 맞는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후퇴하고, 모든 권한이 왕에게 집중되어 지역자치적인 지파공동체가 붕괴되며, 백성들은 세금과 부역과 징병으로 고역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론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정말 그랬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를 의지하였고, 풍요를 보장해주는(?) 이방신들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세상 통치자의 상징이다. 오늘의 대통령과 본질상 차이가 없다. 군신관계의 왕권체제에서 공복-주인 관계의 민주체제로 바뀌긴 하였으나 그를 의지하여 세속적인 욕구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왕을 요구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생각보다는, 즉 불확실한 미래에 매달리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을 행사하여 무언가 변화를 확실하게(?)보여줄 수 있는 권력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물론 왕권시대와 오늘의 민주공화주의 시대는 큰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왕권시대에는 모든 권력이 왕가와 귀족들에게 집중되었고 백성들은 지배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민주공화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전제위에 서있는 체제이다. 국민의 위치가 정치의 객체에서 주체적 존재로 바뀌었다.

우리는 오늘 엄청난 진통을 앓고 있다. 유례없는 사건,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마음속에 품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여론도 양분되고 상호 적대적이다. 분열과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현실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것이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진다.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차이는 이 점에서 극명하게 대립된다. 노무현 정권이 추구한 것은 민주주의

의 신장, 인권의 존중,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지역차별의 극복과 지역균형발전, 남북의 평화적 통일 등이었다. 반면 현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그 정반대이다. ‘경제살리기’의 명분이 그 모든 가치들보다 우위에 있다. 중요한 점은 노무현 정권이 추구한 가치와 정책들이 ‘정의’로운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성경적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미 3:1).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바는 그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반성경적이다. 하나님은 통치자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시는 정의의 가치를 저버리고 있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맘몬이즘이라는 새로운 신,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풍요를 약속하며 백성을 미혹하는 바알정권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권력은 본질상 인간중심주의의 표출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중심 신앙과 배치된다. 이 점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시대를 넘어서서 깊이 생각할 주제이다. 사무엘이 왕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 것은 오늘도 유효하다. 문제는 현실정치가 추구하는 바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 평화 등 성경 말씀에 가까우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공화제하의 정치를 바로 잡아나아가야 할 책무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훨씬 크게 있다. 대통령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❶